

# 나홀로 '국대 타이거즈' 야수... 나성범은 외롭다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박찬호라도 데려올 걸 그랬다"며 아쉬워했고, 박찬호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웃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KIA의 스프링캠프가 꾸려진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 플래시 세레가 쏟아졌다. 전날 투싼에 소집된 WBC 대표팀이 이곳에서 첫 훈련에 나선 것이다.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는 KIA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스타디움과 함께 7개 야구장, 2개의 보조 구장이 갖춰져 있다.

KT 위즈도 이곳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고, WBC 대표팀도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를 베이스 캠프 삼아 '4강 영광 재현'에 나선다.

대표팀에 소집된 KIA 양현종, 나성범, 이의리는 유니폼만 갈아입고 익숙한 곳에서 WBC 대표팀 여정을 시작했다.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첫 훈련을 소화했지만, 예정됐던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훈련이 시작되는 등 '날씨 변수'에 관계자들은 노심초사했다.

간 밤에 투싼에 비가 내렸고,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비가 눈이 돼 쌓인 것이다. 이 영향으로 그라운드 상황이 좋지 못해 오전 9시로 예정됐던 훈련은 오전 11시에 시작했다.

선수단이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푸는 것으로 대표팀의 첫 훈련이 시작했다. 이어 야수, 투

수수로 나눠 훈련이 진행됐다.

KIA 야수 중 유일하게 참가

"박찬호라도 데려올 걸 아쉬워"

KT 소형준이 불펜피칭을 하면서 취재진의 시선을 끌었고, 다른 투수들은 러닝과 수비 훈련 등을 하면서 WBC 준비를 시작했다.

대표팀의 '막내' 이의리는 양현종과 캐치볼을 하는 등 든든한 선배의 도움 속에 대표팀 적응에 나섰다.

가볍게 베이스 러닝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야수조는 6명씩 조를 나눠 로테이션을 돌면서 본격적인 훈련을 전개했다.

KIA의 '신구에이스'가 나란히 호흡을 맞추며 첫 날을 보내는 동안 나성범은 "외톨이다"라며 하소연을 했다.

KIA 야수 중 유일하게 대표팀 호출을 받은 나성범은 "투수는 현종이 형이랑 의리가 함께 해 보이지 않는 줄이라도 있을 것인데 나는 없다. 박찬호라도 데려와야 했다"는 농담을 하며 웃었다.

여기에 하필 고참조에 포함되면서 나성범은 쫄지에 막내가 됐다.

나성범은 "조를 나눠 6명씩 훈련하는데 선배들과 한 조가 돼서 막내다. 언제까지 막내 노릇을 해야 하나(웃음). 그래도 젊은 게 좋다. 형들이 잘 해 준다"고 막내가 된 사연을 말했다.

나성범은 NC 양의지, 키움 이지영·박병호, SSG 최정, LG 김현수와 한 조가 돼 훈련을 했다.

나성범의 하소연을 전해들은 박찬호는 "나는 할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 WBC대표팀 캠프에서 타격 훈련하고 있다. KIA타이거즈는 같은 장소에서 스프링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만큼 했다"였다.

'도루왕' 박찬호는 내심 WBC 대표팀에 육심을 냈지만 워낙 내야진이 막강해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어 박찬호는 "성범이 형도 KBO 시상식에 나를 외롭게 홀로 보냈다. 다음에는 시상식이든 대회든 같이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강철 WBC 대표팀 감독은 훈련 이틀째인

16일 오후 1시 NC를 상대로 첫 번째 평가전을 갖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한다. 이의리도 이 경기에 나와 1이닝을 소화할 예정이다.

/wool@kwangju.co.kr

## '최소 세 타자 상대' 규정 ... 이강철 감독 투수 운용 '고민'



이강철 감독

경험 많은 양현종·김광현 불펜 기용할 듯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의 사령탑 이강철(57) 감독은 16일(한국시간) 대표팀 결성 후 첫 훈련을 마친 자리에서 녹록지 않은 고민을 토로했다.

이 감독은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대표팀 첫 합동 훈련을 끝낸 뒤 인터뷰에서 대표팀 소집과 함께 규칙 변수를 고려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동점 상황에서 연장 10회초에 들어가는 승부치기 못지않게 이번 대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투수의 '최소 세 타자 상대'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주도하는 WBC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번 대회 규칙을 발표하고 현재 메이저리그 야구 규칙 5조 10항에 포함된 최소 세 타자 상대 규정을 WBC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MLB닷컴은 최소 세 타자 규칙을 '투수 교체 횟수를 줄이고 경기 진행 시간을 줄이고자 MLB 사무국이 2020년에 도입한 제도'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개했다. 이 규정은 투수는 마운드에 오르면 최소 세 타자와 대결하거나 이닝을 끝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다치거나 아픈 투수만 이 규정의 제외 대상이다.

가령 투아웃에서 등판한 투수 A는 한 타자를 잡아내 이닝을 마치고서 다음 이닝에서는 다른 투수로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투수 A가 다음 이닝에도 마운드에 오르면, 최소 세 타자 상대 규정에 따라 두 명의 타자와 더 대결한 뒤에야 강판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제구 능력이 좋지 않은 투수를 박빙의 상황, 그것도 경기 중후반에 투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확실하게 이닝을 끝낼 수 있는 투수가 아니고서는 구원 투수는 무조건 세 타자와 맞붙어야 하기에 감독은 경기 상황, 투수의 컨디션, 아웃카운트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투 작전을 짜야 한다.

아직 대표팀 투수들의 보직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 감독이 투수진의 '만행'이자 경험과 실적에서 가장 신뢰하는 김광현(SSG 랜더스)과 양현종(KIA 타이거즈)을 불펜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밑자락을 깔 것도 최소 세 타자 규정과 맥이 닿는다. 제 컨디션이 아닌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 불넷을 남발하는 최악의 경우엔 계투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에 이 감독은 WBC에서 믿을 수 있는 투수들을 중용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

마운드 운용의 귀재로 꼽히는 이강철 감독이 WBC만의 투구 수 셈법과 세 타자 규정 '결림'을 슬기롭게 돌파한다면 한국 야구의 또 다른 신화를 쓸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시페퍼스 선수들이 1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김연경의 스파이크를 블로킹하고 있다. 페퍼스가 세트 점수 0-3으로 졌다. <KOVO제공>

## 배구 '김연경 은퇴' 올해가 적기?

흥국생명, 지난해 6위서 올해 우승까지 노려  
"높은 자리 있을 때 내려놓고 싶다" 발언 주목

'배구 여제' 김연경(35·흥국생명)이 올 시즌 V리그에 복귀한 배경에는 현역 생활의 마침표를 국내 무대에서 찍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2020-2021시즌 흥국생명에 잠시 돌아왔을 때 우승하지 못했던 한도 풀고, 은퇴 이후 꾸려나갈 제2의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김연경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3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방송이나 다른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퇴를 하더라도 배구 쪽에 뭍으며 도움이 될만한 일들을 하려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경험을 토대로 많은 유소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V리그에 돌아온) 선택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언제 은퇴할지는 몰라도 국내 팬들 앞에서 고별전을 치르고, 그 이후엔 코트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한국 배구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힌 것이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김연경의 '은퇴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흥국생명은 지난 15일 페퍼저축은행전 승리로 승점 63(21승 7패)을 쌓아 현대건설(승점 61·21승 7패)을 106일 만에 제치고 리그 1위에 올라섰

다. 올 시즌 팀을 이끌어온 김연경은 이날도 팀 내 최다 득점(19점)에 가장 높은 공격 성공률(63.33%)로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시즌 6위였던 팀이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박수받을 때 떠나야 하나'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승한다면 다음 시즌에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김연경이 경기를 마치고 "예전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리를 내려놓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취재진이 질문을 하면서도 민감한 내용을 고려해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솔직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고민의 깊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제 김연경은 자신이 코트 안과 밖에 있는 것 중 어느 길이 한국배구에 더 기여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구계 안팎에서는 그가 은퇴한다면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길을 걷거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 광주FC, 수비 '컨트롤 타워' 김경재 영입

광주FC가 '컨트롤 타워' 김경재(29·사진)를 영입해 수비를 강화했다.

광주는 전남드래곤즈와 제주 유니아이 등에서 활약한 수비수 김경재를 영입했다.

183cm·73kg 체격의 김경재는 탄탄한 대인 방어와 태클, 빌드업이 뛰어난 중앙 수비수로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다. 노련한 수비 리딩과 함께 안정된 경기 운영 실력을 보이면서 '컨트롤 타워'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

다. 김경재는 이정호 감독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2012년 모교인 아주대에서 이 감독과 사제의 연을 맺었고, 이후 전남을 거쳐 제주에서 다시 이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다.

특히 김경재는 아주대 재학 시절 2015 아시아대학 친선 축구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주장을 맡기도 했다.

2016년 전남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한 김경재



는 세 시즌을 보낸 뒤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며, 주전으로 활약했다.

이후 제주로 이적해 세 시즌 동안 45경기에 나서 1부 리그 승격과 파이널A 진출에 기여했다.

이정호 감독과 재회한 김경재는 "팀에 하나되는 게 최우선이다. 늦게 합류한 만큼 빨리 몸을 만들어 팀의 또 다른 역사에 기여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